

# 천로역정

주교재: 리마커블 천로역정 (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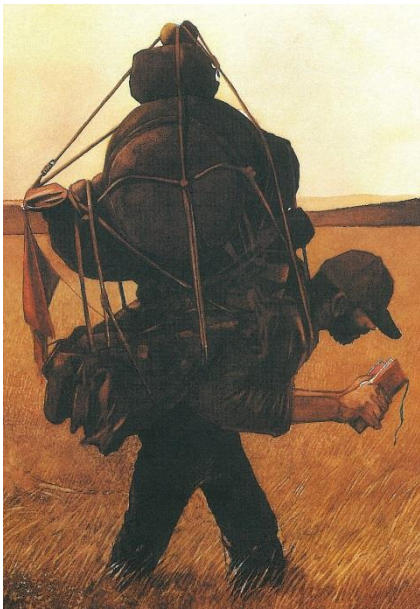
보조교재: <천로역정>, 예찬사: 1986. 이하 예찬사로 표기한다.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울산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 울산에서 멸망의 도시를 찾는다면?

## ■ 첫 번째 이야기 (히 11:13-16)

### 1. <천로역정>은 우리들의 \_\_\_\_\_다.

한 남자가 등과 어깨 위로 높이 올라온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를 구부리고 어떤 작은 집 아래쪽에 있는 들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p. 19).



<천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이야기 자체에 카메라오로 출연한다.

이야기는 “나”라고 부르는 주인공이 황야를 걷다가 조그만 동굴에 누워 잠이 드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꿈 속에서 한 짐을 지고 가는 사내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존 번연은 자연스럽게 독자를 현실에서 이야기 세계로 초대한다. 존 번연도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의 유익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이제 펜을 놓기 전에 이 책의 유익을 말하리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안 읽고는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의 손에 맡긴다. 이 책은 영원한 상을 받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그가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영광의 문에 이르는 것을 보여준다.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온 힘을 다해 생명을 찾아 떠나는 자의 모습도 보여준다. 또한 그의 노고가 허사로 돌아가 바보처럼 죽게 되는 이유를 알게 해 준다. 이 책의 의도는 당신도 주인공들처럼 여행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찬사, 22).

### 2. <천로역정>의 소재는 \_\_\_\_\_이다.

나는, 손에 책을 들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진 채 길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을 등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찌 해야 좋을까?” (예찬사, 27).

존 번연은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성도의 삶과 인생여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변을 여러 편의 글로 쓰게 되었다. 후일 그가 신앙적인 이유로 1675 년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묵상하고 연구한 내용을 보다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우화와 비유의 형식을 빌려 <천로역정>을 쓰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고집불통, 변덕쟁이, 친절, 분별, 소망, 믿음 등이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개념들을 의인화하여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_\_\_\_\_이다. 이는 존 번연이기도 하고, 우리 일반 성도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보편화된 인물이다. 천로역정 이야기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다. 책에서는 밝혀지지 않으나 이는 틀림 없이 \_\_\_\_\_일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 책을 접한 뒤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계 18:2-3).

이 때문에 크리스천은 저녁 노을을 보고도 임박한 불의 심판을 연상하고는 절규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눈을 뜨고 일어나 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대로 있어요.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p. 23).

육안으로 본 세상은 아무 일이 없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위안이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의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아마도 크리스천이 펼쳐 읽었던 성경은 시편 38:4 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울부짖으며 외친다. “어찌 해야 좋을까?”(행 2:37; 16:30-31).

\*이러한 사정은 존 번연 개인의 영적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번연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다. “신앙에 대한 나의 생각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번연은 신앙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경건한 인격과 행동은 다시금 번연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던 어느 날 번연이 고양이를 괴롭히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라는 준엄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 강렬한 영적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P. 8).

### 3. 우리들은 본향을 찾는 \_\_\_\_\_다.

“여보,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요.” 그가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꽂혀 있는 짐을 풀려고 가죽 끈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그는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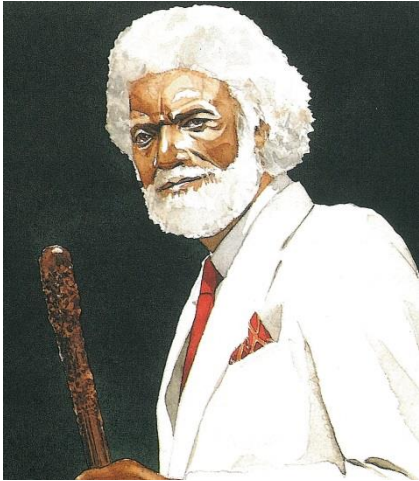
크리스천의 고뇌와 번민은 그를 멸망의 성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살에 박힌 모래가 되었다—성경은 종종 이를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 혹은 갈급함으로 묘사한다(시 42:1-2; 사 55:1; 마 5:6; 계 22:17). 크리스천은 어떻게든 이 짐을 풀어보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의 가족들이 그 짐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이도 소용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좌절은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 하늘의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있다(창 12:1; 호 11:4).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인도하기 위해 매어두신 영혼의 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롬 8:30, 35; 빌 1:6; 히 6:19).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복음 전도자의 도움으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의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어준 의식, 곧 \_\_\_\_\_의식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공통된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 11:13-14).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 나그네 의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나그네 된 순례자다.

1. \_\_\_\_\_ (Evangelist)와의 만남.

그때 나는,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저는 전도사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듯 불안해 하지요?”.....“나의 등에 짚어진 이 짐이 날 무덤 저 아래로 빠지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도사는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달아날지어다’라고 씌여진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었다” (예찬사, 29-30).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한 사내가 다가온다. 그의 이름은 \_\_\_\_\_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보통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열 살정도 어리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므로 남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죽음이 10년 유예되어 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죽음은 남자들의 생각보다 10년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성경은 이것을 애둘러 말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죽음이다. “하지만 이 짐이 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P. 27). 아마도 그가 주목했던 성경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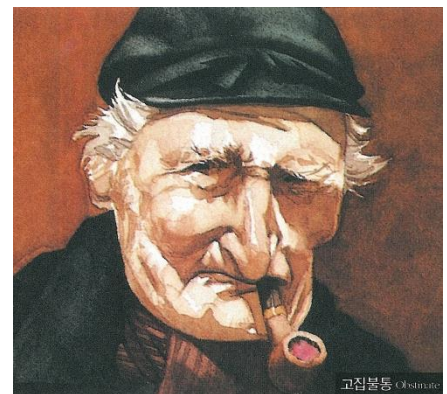
히브리서 9:27이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_\_\_\_\_이 있으리니.”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자각,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온 복음전도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한다—여기에는 어떤 인위적인 조작과 구차한 설득, 강요나 협박이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P. 27). 그제서야 복음전도자는 두 번째 들판 너머에 보이는 빛나는 문을 가리키며 크리스천에게 말한다.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에 이르면 두드리십시오”(P. 28).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가족들의 만류와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한다.

2. \_\_\_\_\_ (Obstinate)과의 만남

“이보게들, 나랑 같이 가세나. 그러면 내 말이 옳다는 게 입증될 거야.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쁨을 발견할 것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 “책 따위는 집어 치워!” 고집불통이 말했습니다 (p. 32).

마을 사람들 가운데 데리고 오겠다며 크리스천을 뒤쫓았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_\_\_\_\_ 씨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_\_\_\_\_ 씨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크리스천을 따라잡았다. 크리스천은 오히려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자고 이들을 설득한다. 이에 고집불통 씨가 말한다. “뭐라구요! 그러면 우리 모든 친구들과 즐거운 일들을 버려두고 떠난단 말이요?” (예찬사, 31). 크리스천은 성경을 펼쳐보이며 말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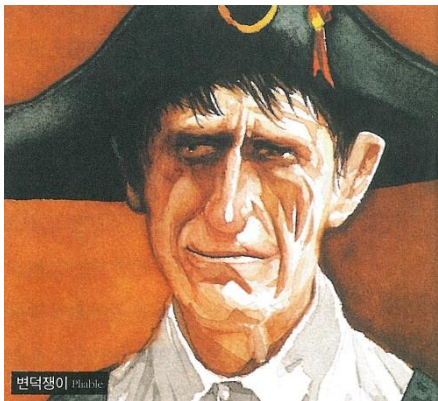
간직하신 것이라”(벤 1:4). 고집불통 씨는 “책 따위는 집어치워!”라고 화를 내며 멸망의 도성으로 되돌아간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걸림돌은 ‘자기 고집’이다. 크리스천의 말 속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버리고,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되, 그것에 매이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더 나은 기쁨을 위해 언제든지 그리고 기꺼이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애굽에 머물면서, 동시에 가나안에 갈 수는 없다.

\*죄가 관영한 소돔성이 멸망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가족들 모두를 소돔 성에서 이끌어 내라고 명령하신다. 롯은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창 19:14). 그러나 사위들은 소돔성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불로 멸망을 받았다. 당시 사위들의 고집스러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의 사위들은 \_\_\_\_\_으로 여겼더라”(창 19:14).

### 3. \_\_\_\_\_ (Pliable)과의 만남

“어서 서두르세!” 변덕쟁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크리스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당장 손에 넣고 싶어!” (p. 33).



고집불통 씨와 함께 따라왔던 변덕쟁이 씨는 크리스천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크리스천을 한 번 따라가 보겠다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변덕쟁이 씨의 관심은 천성에서 받게 될 빛나는 옷과 영광의 면류관, 슬픔이 없는 세상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빨리 얻고 싶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당장에 얻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얼마 되지 못해 신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꿈꾸는 신앙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고, 수고 없는 사랑을 바라며, 회개 없는 천국을 꿈꾼다. 하지만 \_\_\_\_\_의 고통이 없이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죄의식이다.

결국 변덕쟁이 씨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서야 신앙의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 간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을 건져준 도움(Help) 씨는 이 늪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진흙 구덩이는 \_\_\_\_\_의 찌꺼기와 오물이 계속해서 쌓인 이유로 수렁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죄인들이 성령에 의해 깨어나서, 그들 자신의 악한 상태를 보면 그들 영혼 가운데 많은 의심과 공포, 실망과 두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이곳에 모여들고 쌓여서 진창을 이루게 됩니다” (예찬사, 36).

이 수렁은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 이 수렁은 죄에 대한 자각에 수반되는 실망감과 낙심과 좌절, 여전히 버림 받은 것과 같은 느낌 등은 한 동안 크리스천을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그러나 이 수렁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전한 디딤돌이 놓여 있다. 오직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발견하여 걸을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사 35:3-4; 시 139:7-10; 롬 7:25).



## 1. \_\_\_\_\_ (Worldly Wisdom)와의 만남

“지금까지 당신이 읽고 있던 책을 당장 집어던지고 내 지시를 따라 율법이라는 어른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는 것이요. 짐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른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요” (p. 45-46).



절망의 수렁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이제 홀로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간다. 이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_\_\_\_\_였다. 크리스천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세속의 지혜가 가진 본성을 엿보게 된다. 첫째로 세속의 지혜는 \_\_\_\_\_이다. 세속의 지혜 씨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크리스천을 향해 말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충고하고 싶소이다”(p. 44). 프랑스 루이 16 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배가 고프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속의 지혜자는 크리스천 영혼의 깊은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세속의 지혜는 \_\_\_\_\_이다. 그는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신한다. “이 길 앞에는 사자들과 괴물들과 거인들, 그리고 온갖 두려운 것들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도사리고 있소....나 같으면 그런 위험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요”(p. 45). 세속의 지혜자는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을 꺼려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는 고난을 통한 영광을 상징하는 \_\_\_\_\_의 길을 결코 알지 못한다(마 7:13-14).

셋째로 세속의 지혜는 \_\_\_\_\_이다. 세속의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읽고 있던 성경책을 당장에 집어던지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는 지도 모른다. “죄의식이란 그저 단순한 실수에 대한 과대망상적 피해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므로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실수를 만회하는 것입니다”하고 말이다. 세속의 지혜는 크리스천의 짐을 성경의 관점과는 달리 해석한다. 그리고 더욱 상세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도덕의 마을(Village of Morality)에 살고 있는 \_\_\_\_\_ 씨에게 가보라고 크리스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최근(2015)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별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오른쪽 도표와 같다.

◎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극락/천국에 갈 수 없다': '아니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73	76	79	84	75
개신교인	37	39	32	31	36
천주교인	61	69	73	72	67
비종교인	74	79	80	83	76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73. 한국갤럽

## 2. \_\_\_\_\_와의 재회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산처럼 높은 언덕이 그의 머리 위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지혜자의 충고를 들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p. 47).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율법 씨를 만나기 위해 도덕의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곧 율법 씨의 집이 매우 높은 절벽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실상 율법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시내산이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요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출 19:21).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 시내산 정상, 율법 씨의 집에 도착했다라면 그는 틀림 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롬 3:20). 그리고 무릎을 꿇게 했고, 세속의 지혜자의 말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게 된 것이다.

이때 크리스천은 복음전도자를 다시 만난다.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_\_\_\_\_이다!

복음전도자는 낙심한 크리스천에게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cf. 마 18:22). 이때 그가 사용한 성경구절은 시편 2:12 말씀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크리스천은 그가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든지 오직 좁고 험악한 길로만 걸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의 순례의 길을 계속한다.

## 3. \_\_\_\_\_ (Goodwill)과의 만남

“우리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건 결코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찬사, 51).



드디어 크리스천은 복음전도자가 일러준 빛나는 문에 도착했다. 그 문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뚜렷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마 7:7). 이윽고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드디어 한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와 크리스천을 재빨리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이름은 \_\_\_\_\_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앞에서 바알세불이 쏜 화살에 맞아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만일 친절 씨가 아니었다라면 크리스천 역시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순례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호의는

이들이 신앙의 순례를 계속해 가는데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어 친절 씨는 크리스천을 격려해 다음 행선지인 \_\_\_\_\_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 네 번째 이야기 (딤후 3:10-17)

□ \_\_\_\_\_ (Interpreter)와의 만남

크리스천은 친절 씨의 조언을 따라 곧고, 좁은 길로만 걸어 \_\_\_\_\_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해설자는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크리스천에게 순례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 장면을 보여 준다. 순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 두고,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1. 어떤 남자의 그림:

“그 남자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인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고,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등 뒤로 좁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p. 61).

해설자가 크리스천에게 보여준 첫 번째 장면은 한 남자의 그림이다. 해설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이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그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이 남자에게 부여하셨다. 이 남자는 천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자녀를 잉태하여, 낳고, 그들을 양육한다(고전 4:15; 갈 4:19). 그는 늘 손에는 \_\_\_\_\_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죄인들에게 어둠의 일들에 대해 알게 하는 그의 \_\_\_\_\_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먼지가 가득한 방:

“첫 번째 비질은 율법의 비질입니다.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그러나 두 번째 비질은 은혜의 비질입니다. 두 번째 비질로 방이 깨끗해졌듯이 은혜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p. 63).



해설자가 두 번째로 보여준 장면은 먼지가 가득한 거실을 청소하는 장면이었다. 여기서 먼지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한 \_\_\_\_\_다. 첫 번째 사람은 \_\_\_\_\_을 상징한다. 그는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비질을 해 보지만, 오히려 먼지를 일으켜 질식할 지경이 되었다. 율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다만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롬 7:14). 이어 등장한 하녀는 복음의 \_\_\_\_\_다. 그녀는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서야 거실을 청소했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최악은 정복되고, 영혼은 정결함을 얻는다(겔 36:25).

### 3. 두 아이의 방:

“손위 아이의 이름은 걱정(Passion)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Patience)였다. 걱정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반면에 인내는 매우 평온해 보였다” (예찬사, 55).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욕정(Passion)이가 불평을 하는 이유는 약속된 것을 당장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인내(Patience)가 평온한 이유는 좋은 것을 받기로 약속된 시간까지 기꺼이 기다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욕정이는 \_\_\_\_\_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에 심취한다. 비유컨대 잠시 동안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종자씨앗을 배에 심는다. 인내는 \_\_\_\_\_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들은 장차 주어질 좋은 것을 참고 기다린다. 가을에 거둬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며 종자씨앗을 밭에 심는다(눅 16:25; 고후 4:18).



### 4. 벽난로가 있는 방:

“마귀는 불, 곧 은혜의 역사를 끄기 위해 애씁니다. 벽난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역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p. 55).



다른 방에 들어간 크리스천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한 남자가 주전자로 장작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지만 벽난로는 꺼지지 않았다. 그는 사탄이다. 해설자의 안내를 따라 벽 뒤로 돌아가 보니 다른 한 남자가 은밀히 벽난로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다. 사탄은 성실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최고를 목표로 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는 그 \_\_\_\_\_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빌 1:6). 우리는 언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은혜의 역사는 진행중이다.

그러므로 침체되었어도, 신앙은 계속되어야 한다.

\*칼빈의 5 대 교리 (TUL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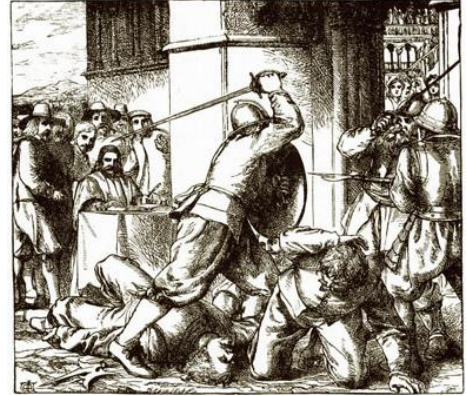
1.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2.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3.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4.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5.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 5. 아름다운 궁전 입구:

“모든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했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알았다”(예찬사, 57).

이어 해설자는 크리스찬을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도한다. 도착해 보니 궁전문은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어둠의 기사들이 검과 창을 들고 무섭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등장한다. 그는 궁전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말해주고는 어둠의 기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어둠의 기사들이 제지하려고 했으나,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맹렬하게 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히 10:39). 결국 기사는 궁전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의복을 입게 된다(마 11:12). 아름다운 왕궁은 \_\_\_\_\_에 맞서는 \_\_\_\_\_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 6. 절망의 감옥:

“나도 한 때는 당신처럼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다른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원히 길을 잃어 이렇게 철장 안에 갇힌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p. 66).



이어 크리스찬은 한 어두운 방으로 인도를 받는다. 거기서 한 사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_\_\_\_\_(Despair)이었다. 크리스찬은 절망 씨가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절망이 대답한다. “나는 조심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열정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말씀의 빛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설법에 굴복하였고, 사탄은 내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극하여 노하시게 했고, 그분은 저를 떠나셨습니다. 제 마음은 완고해 졌고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예찬사, 58).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다. 절망 씨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저 철창 속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한숨만 쉴 뿐이다. 우리는 절망 씨의 대답 속에서 일종의 <절망 공식>을 발견하게 된다. \_\_\_\_\_을 사랑하면(요일 2:15), \_\_\_\_\_에서 멀어지고(약 4:8),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_\_\_\_\_해져(딤후 4:2),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된다.

## 7. 무서운 꿈을 꾸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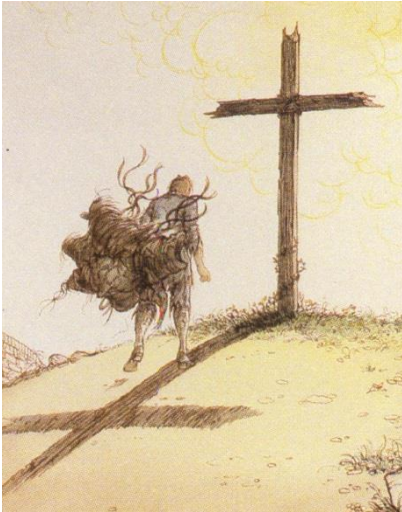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나라로 가는데, 저는 뒤에 남겨졌던 일입니다. 또한 지옥이 내 앞에 열려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심판자가 진노하여 나를 계속 지켜보며,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찬사, 60).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어떤 남자가 잠에서 깨어 벌벌 떨고 있는 방을 보았다. 그가 몸을 떨었던 이유는 간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꿈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꿈에서 천사들에게 “가라지, 쭉정이, 검불은 모두 모아 불 속에 던지라”고 명하셨고, 이어 이 사내는 발 아래서 열린 지옥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때 그는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것은 구름 위에 앉아 있던 분이 그때까지 그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꿈을 꾸며 심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다. 이 방은 크리스천에게 묻는다. “\_\_\_\_\_의 날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날을 맞이할 \_\_\_\_\_가 되어 있습니까?”



## 1. \_\_\_\_\_ 앞에서 무거운 짐이 풀림

“그가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막 도착했을 때 어깨에 짊어졌던 짐이 풀어져 흘러내리더니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 짐은 열린 무덤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상은 안 보였다” (예찬사,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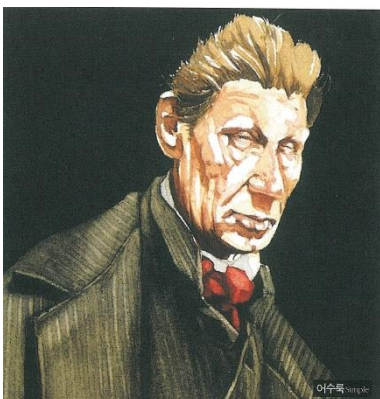
복음전도자와 해설자의 도움으로 크리스천은 순례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크리스천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이해하고 \_\_\_\_\_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천로역정의 다음 장면에서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 꼭대기에 뛰어 올라간다. 크리스천이 그 곳에 세워진 \_\_\_\_\_ 앞에 섰을 때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은 저절로 풀리더니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렸다. 비로소 그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제 무죄, 청결, 행복과 자유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죽음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죄들은 구세주의 무덤 속에 파묻혀 사라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거역했다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찬사, 64).

크리스천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랑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cf. 찬 268 장). 이때 세 천사가 가까이 다가왔다. 첫번째 천사는 말했다. “네 죄가 용서 받았고 네 짐이 사라졌다” (시 103:12). 둘째 천사는 더러워진 크리스천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_\_\_\_\_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롬 3:21-22).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쳤고, 밀납으로 봉인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건네며 말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라!” 이 두루마리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_\_\_\_\_의 말씀을 비유한다. 크리스천은 이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수시로 읽어 순례의 길을 계속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 받는다(롬 5:20-22; 히 3:14).

## 2. 잠이 든 세 사람과의 만남

“그는 언덕 아래에서 사슬에 발이 묶인 사람 셋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 잠든 게 틀림없다고 크리스천은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세요!’”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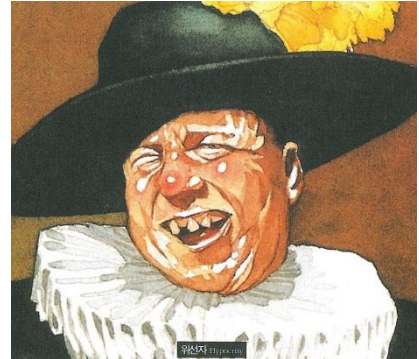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크리스천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찬송을 부르며 언덕을 내려왔다. 내려오자 마자 그는 잠에 곪아 떨어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_\_\_\_\_ (Simple), \_\_\_\_\_ (Sloth), 그리고 \_\_\_\_\_ (Presumption)이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이 경고에 대해 어리숙 씨는 “위험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어수룩한 것이 아니라, 만사태평한 사람이었다. 게으름 씨는 “조금만 더 잡시다”라고 했고, 거만 씨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잠들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다가가 보니 이들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한 마디로 이들은 \_\_\_\_\_ 신세였다.

### 3. \_\_\_\_\_와 \_\_\_\_\_와의 만남

“당신도 지금 이 길 위에 있고 우리들 또한 그렇소. 어쩌면 당신이 빛나는 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당신과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같지 않소?” (p. 83).

이어 크리스천은 허영의 땅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지름길을 찾아, 순례의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따라 세워진 담을 넘어 크리스천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_\_\_\_\_ (Hypocrisy)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_\_\_\_\_ (Formalist)였다. 이들의 모토는 한 마디로 “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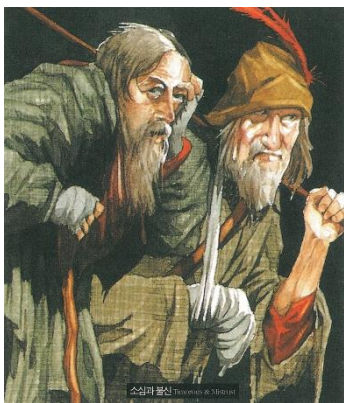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도 당신과 똑 같은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당신의 자리가 좋다고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찬사, 65-66).

이들은 크리스천과 외관상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크리스천과 다르다. 첫째, 이들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얻은 선물, 곧 \_\_\_\_\_의 선언와 그리스도의 \_\_\_\_\_를 상징하는 새 옷, 그리고 성령의 인침과 약속의 \_\_\_\_\_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없다. 그들은 \_\_\_\_\_ 앞에 서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이들은 \_\_\_\_\_을 만났을 때 크리스천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고난의 산에 도착해서 크리스천은 비록 험하지만 정상을 향하여 고되지만 옳은 길을 따라 걸었다. 힘들 때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펴 읽었고, 그의 영혼은 그로 인하여 재충전되었다. 하지만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 크리스천이 걸었던 길 좌우로 난 편안한 길을 따라 갔다. 두 길이 산을 돌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선자가 걸은 길의 이름은 \_\_\_\_\_ (Destruction)이었고, 형식주의자가 걸은 길은 \_\_\_\_\_ (Danger)이었다. 그리고 이후로 크리스천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다.

### 3. \_\_\_\_\_과 \_\_\_\_\_과의 만남

“뒤로 가도 이로울 게 없기는 마찬가지야.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도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거야.” (p.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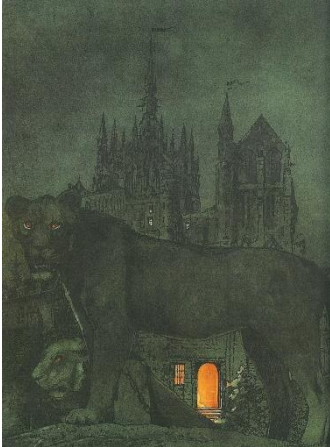
고생 끝에 산의 중턱에 오른 크리스천은 아늑한 정자에 누워 그의 품에서 두루마리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 황혼 무렵에 깨어난 그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서 황급히 내려오는 두 사람, 곧 \_\_\_\_\_ (Timorous) 씨와 \_\_\_\_\_ (Mistrust) 씨를 만난다. 그들은 갈수록 위험해 지는 것 같아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산 정상 아름다운 궁전의 입구를 지키는 사자를 보고 놀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뒤로 돌아갈 길이 없다. 그는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불과 유황불에 죽느니 차라리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는 계속해서 길을 가기로 한다.

이때 두루마리의 약속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품 안을 뒤적이던 크리스천은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산 중턱 정자로 다시 뛰어 내려갔다. 겨우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발견한 크리스천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서둘러 산의 정상을 향해 달려갔다.



## 1. \_\_\_\_\_ 궁전에 도착함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아무 것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p. 96).



해가 저물 무렵 정상에 가까이 도착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하게 된다. 궁전에 다다랐을 때, 크리스천은 깜짝 놀라 멈추어 서고 만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소심 씨와 불신 씨가 천국 가는 순례를 포기하게 만든 두려움의 대상, 곧 \_\_\_\_\_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궁전의 문지기(\_\_\_\_\_ [Watchful])가 나타나 크리스천을 독려한다.

“당신은 믿음이 약하군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놈들은 여행자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 한 복판으로 오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 (예찬사, 73).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어 두 마리의 사자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갔다. 사자들은 크리스천을 향해 달려 들었으나 그들을 묶고 있는 \_\_\_\_\_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닿을 수 없었다(cf. 고전 10:13). 드디어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 2. 궁전 아가씨들과의 만남

“이 집은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_\_\_\_\_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p. 100).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크리스천은 이 궁전에 거주하는 한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_\_\_\_\_ (Discretion)이었다. 그녀는 크리스천에게 그의 이름과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는지를 물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며 깊은 공감을 하게 된 분별 양은 크리스천에게 다른 세 명의 자매, 곧 \_\_\_\_\_ (Prudence), \_\_\_\_\_ (Charity), \_\_\_\_\_ (Piety)을 소개해 주었다—Discretion 과 Prudence 의 번역은 <천로역정>(예찬사)를 따랐다.



경건 양은 매우 꼼꼼하게 크리스천의 순례의 여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해설자의 집을 방문했는지, 십자가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등등을 물었다. 분별 양은 크리스천에게 떠나온 멸망의 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분별 양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할 때가 있는지를 묻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한다. “한 때 즐기기도 했던 육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_\_\_\_\_이 아니라, \_\_\_\_\_입니다”(롬 7:15). 마지막으로 자비 양은 왜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화는 잘 차려진 저녁식탁에서도 계속됐다. 이 궁전의 주인은 위대한 전사이지만, 순례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천성에서 만나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고, 크리스천은 \_\_\_\_\_(Peace)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

\*크리스천이 방문한 아름다운 궁전은 지역 교회를 상징한다. 지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례의 길에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소다. 잘 차려진 음식과 평화의 방에 마련된 잠자리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상징이다. 또한 한편으로 지역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신중하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건의 삶과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지역교회의 특성은 신중 양의 세 자매, 곧 경건(신앙고백), 분별(성결한 삶), 자비(복음전도)의 이름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 3. 궁전 아가씨들의 \_\_\_\_\_

“등을 보호해 줄 갑옷은 없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며 후퇴할 작정이십니까? 분별이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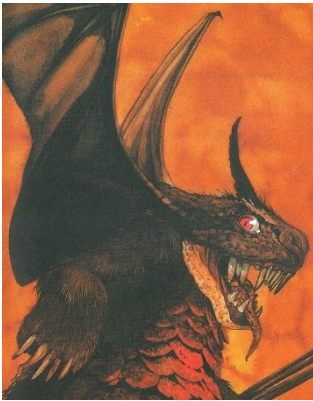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는 날, 아가씨들은 그를 병기고로 데려가서 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추게 하였다. 신중 양은 벽에 걸린 흉패를 가져다 크리스천에게 입혀 주었고, 경건 양은 투구와 정강이 보호대를 입혀 주었으며, 자비는 검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은 커다란 방패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크리스천은 앞으로 순례의 길에서 치루게 될 전쟁을 위해 온몸에 \_\_\_\_\_를 갖추어 입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묻는다. “등을 보호해 줄 갑옷은 없습니까?” 그러자 분별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며 후퇴할 작정이십니까?” 이 말에 크리스천은 겸연쩍어하며 대답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고후 10:4; 히 10:39).

이어 이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 저멀리 남쪽에 보이는 한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곳은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땅, ‘\_\_\_\_\_의 산’입니다. 저 산 정상에 오르면 천성의 문을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당장에라도 그 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작별인사를 하고, ‘검손의 계곡’을 향해 길을 나섰다.

## 1. \_\_\_\_\_과의 결투

“크리스천이 이제껏 보았던 싸움 가운데 가장 두려운 싸움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그러나 그는 괴물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은 캄캄한 계곡 한 가운데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p. 121).



아름다운 궁전을 떠난 크리스천은 겸손의 계곡(Valley of Humiliation)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끔찍하게 생긴 괴물을 만나게 된다. 이 괴물은 용의 날개와 곰의 발,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_\_\_\_\_이었다(계 9:11).

크리스천은 이 괴물과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 크리스천의 승리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천은 배수의 진을 쳤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받은 전신갑주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등을 보호할 갑옷이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볼루온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돌아서서 도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말이다(약 1:6-8).

둘째, 크리스천은 주님께 \_\_\_\_\_을 고백했다. 아볼루온은 처음부터 무력적인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공격하지 않았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른 왕을 섬기기로 했다.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p. 115; cf. 골 1:13; 수 24:15; 계 2:13).

셋째,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_\_\_\_\_을 확신했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평하게 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분이 때로 종들을 고통받게 내버려두시는 것은 선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롬 8:28).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더 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의 충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어, 상을 주시려 하는 것이지요(롬 8:18)”(예찬사, 86).

넷째, 크리스천은 \_\_\_\_\_를 확신했다. 아볼루온은 이번에는 크리스천을 송사했다. 그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임마누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며 조롱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오히려 담대히 말한다. “네 말이 옳다. 아니, 너는 그밖에도 많은 것을 빼먹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은 자비가 충만하시므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느 9:17; 마 18:22).

다섯째, 크리스천은 말씀을 붙들고 \_\_\_\_\_처럼 다시 일어났다. 어떠한 회유책도 소용이 없자, 아볼루온은 불타는 창을 크리스천을 향해 마구 던져대기 시작했다. 아볼루온의 창을 방패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크리스천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결국에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볼루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크리스천은 말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앞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미 7:8). 그리고는 칼을 들고 전력을 다해 공격하자, 아볼루온은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롬 8:37).

## 2. \_\_\_\_\_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

“그렇지만 이 길만이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p. 126).

겸손의 계곡은 자연스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도깨비와 송장귀신과 반인반수 괴물과 귀신들이 처절하게 신음하는 저주받은 영혼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 크리스천은 이 골짜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두 사람, 곧 \_\_\_\_\_ (Self-love)와 \_\_\_\_\_ (Critic)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입에는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결국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 이 골짜기를 통과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때 크리스천은 반문한다. “그렇지만 이 길만이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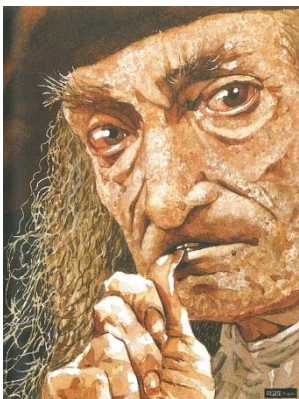


물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하게 된 귀신들의 공격은 결코 크리스찬이 가진 무기들로써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간절한 \_\_\_\_\_’였다(약 5:16). 기도는 그에게 담대함을 회복시켜, 귀신들을 향해 외치게 했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자 귀신들이 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귀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이 지옥을 막 지나가는데 악마가 그의 뒤로 와서 그의 귀에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이 말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자책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절망적인 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거의 깊은 수렁에 떨어질 뻔했다. 그때 어디에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군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크리스천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듣자, 자기가 버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 3. \_\_\_\_\_과의 만남

“옛날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거처했던 동굴이 보였다. 내 앞에 있는 수 없이 많은 남녀의 유해와 뼈들은 바로 그들의 권력과 폭정에 잔혹하게 시달리다 죽어간 자들의 것이었다” (예찬사,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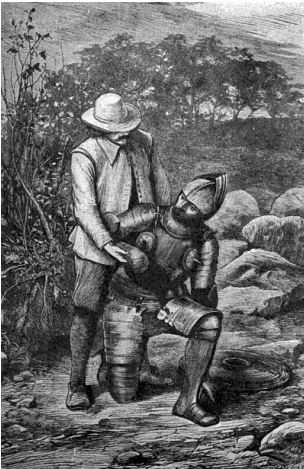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은 아직도 험과 함정, 미끄러운 곳과 깊은 구덩이가 있는 길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해가 밝게 떠 있었으므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볼 수 있었고,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계곡의 끝에서 많은 유해들과 뼈, 그리고 도륙된 시체들을 보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옛날 \_\_\_\_\_과 \_\_\_\_\_라는 두 거인이 거처했던 동굴이 있었다.

크리스천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이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교도 거인은 여러 날 전에 죽었으며, 교황은 이제 늙어 옛날만큼 순례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달려 들어 그들을 살육할 수 없어서 다만 동굴 입구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을 뿐이었다.



□ \_\_\_\_\_ (Faithful)과의 만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앞서 걸어가는 \_\_\_\_\_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믿음 씨는 크리스천과 같은 도시에 살던 인물로 크리스천이 파멸의 도시를 떠난 후 그의 뒤를 따라 기나긴 신앙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믿음 씨가 이곳까지 오며 겪었던 일들이 알고 싶었다.

1. 음란, 아담 1 세, 그리고 모세와의 만남

“그녀는 그 길을 ‘잠깐 동안의 쾌락을 향한 욕망’ 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게 온갖 만족을 약속하면서,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했듯이 나 역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예찬사, 99).

믿음 씨의 신실함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었다. 믿음 씨가 신앙의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유혹은 \_\_\_\_\_ (Wanton)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매력적인 그녀는 온갖 종류의 만족을 약속하면서 믿음 씨를 유혹했다. 심지어 그녀는 성경 말씀을 운운하며 잘못된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믿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잠 5:5)을 떠올리고는 음란 양을 피함으로써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딤후 2:22).



두 번째로 믿음 씨가 만난 사람은 \_\_\_\_\_ 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다—이 노인은 옛 사람 혹은 옛 \_\_\_\_\_ 을 상징한다(엡 4:22). 그는 기만의 도시에 살면서 세상 물건을 사모아 그것을 즐기는 일을 위해 믿음 씨를 고용하고자 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자신의 세 딸을 배우자로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그 세 딸의 이름은 각각 욕신의 \_\_\_\_\_ , 안목의 \_\_\_\_\_ 과 인생의 \_\_\_\_\_ 이다(요일 2:16). 믿음 씨는 노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하마터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뻔했다. 바로 그때 믿음 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세 번째로 믿음 씨는 뒤에서 따라온 사람—모세 혹은 율법—에게 일격을 당하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는 왜 때렸는지를 묻자 그는 믿음 씨가 아담 1 세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달려 들어 또 때렸다. 믿음 씨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며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율법은 \_\_\_\_\_ 를 모른다.” 만일 손과 발에 상처가 난 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믿음 씨는 살아서 크리스천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_\_\_\_\_ 과 \_\_\_\_\_ 와의 만남

“그때는 인간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찬사, 99).

음란과 옛 습관, 그리고 율법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적으로 단단해진 믿음 씨는 이번에는 \_\_\_\_\_ (Discontent) 씨와 \_\_\_\_\_ (Shame) 씨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순례의 길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 씨를 몰아 세운다.

“그는 인간이 자기 의지와 삶을 포기하고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것은 가엾고, 천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또 양심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약이라고 했으며, 오늘날 용기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를 저해하는 규율에 자신을 맞추어 말, 태도,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조롱거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찬사, 106).

믿음 씨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게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없다 전제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다. 만일 그들의 가정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떨 것인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시 10:4).

## □ \_\_\_\_\_ (Talktive)와의 만남

“순수한 신앙심이라고는 저 사람의 마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신앙을, 사람들과 심심풀이로 얘기할 때 즐기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저 사람이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저 사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에게서 듣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예찬사, 112).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동행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_\_\_\_\_였다. 믿음 씨는 대화를 나누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멀찍이 앞서 걸으며 그와의 대화에 끼어들기를 피하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수다쟁이는 크리스천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어떠한 주제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였지만, 순수한 신앙심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형편 없는 사람이었다. 크리스천은 수다쟁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듣는 것은 단지 마음 속에 씨앗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고해서 곧 마음과 생활이 참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심판날에 인간은 자신의 \_\_\_\_\_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찬사, 114).

이어지는 믿음 씨와 수다쟁이 사이의 대화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특별히 믿음 씨의 입을 통해 존 번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증거를 논한다.

## ◇ \_\_\_\_\_ 증거

1. 죄에 대한 \_\_\_\_\_ : “나는 죄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찬사, 115). 믿음 씨는 죄를 반대하는 것(outcry)과 죄를 싫어하는 것(abhor) 사이의 차이를

구분한다. 이 구분을 통해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9:15 을 통해 예시된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은 요셉이 한 말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

2. 행함으로 나타나는 \_\_\_\_\_ : “그분은 그것을 알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고 지식만 가진 자를 축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찬사, 116). 진리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순히 교육을 받고,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참된 진리는 사람에게 전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한다. 즉 소유한즉 \_\_\_\_\_하게 한다(마 13:44).

3. \_\_\_\_\_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죄, 특히 불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드러내 주지요” (예찬사, 117).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부터 신앙의 연쇄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눅 5:8). 이 슬픔은 구원자에 대한 간절함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한다(롬 3:21).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그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 거룩함에 대한 사랑, 그분을 더욱 알고, 더욱 섬기고 싶은 열망의 크기에 비례한다.

#### ◇ \_\_\_\_\_ 증거

믿음 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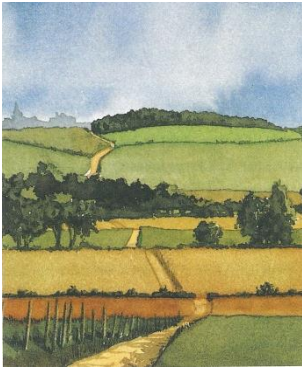
“어떤 사람에게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지요. 첫째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결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즉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사 하고,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타인에게 증거하고, 시간과 재물을 그리스도와 타인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예찬사, 117).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외적 특징은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과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 ■ 아홉 번째 이야기 (롬 8:12-18)

### 1. 복음 전도자와의 재회

“두 분이 저 마을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p. 146).



수다쟁이와 헤어진 후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함께 길을 걸어갔다. 허허벌판을 다 통과할 무렵 그들은 복음전도자와 재회하게 된다. 복음전도자는 이들에게 썩지 않을 \_\_\_\_\_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가라고 권면해 주었다(갈 6:9; 고전 9:24; 히 12:4). 아울러 그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려면, 많은 \_\_\_\_\_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행 14:22)고 말하면서 크리스천과 믿음 씨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곧 당도하게 될 마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남긴다. 이때 믿음 씨가 말한다. “뒤에 있는 고난이 저희들의 달음질을 휘방하지 못했듯이 앞에 있는 고난도 저희들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p. 144).

### 2. \_\_\_\_\_의 시장(Vanity Fair)에 도착함

“상인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영혼이라도 꺼내 팔아치울 사람들이었습니다” (p. 148).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다.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로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았다. 이들이 파는 상품이란 멋진 주택, 토지, 주식과 채권, 보석, 비싼 화장품, 명성, 행운, 평판, 명예, 선거, 속임수, 거짓, 웃음, 성적유혹, 인간의 생명과 영혼 등이며, 이 시장에는 술집, 나이트 클럽, 모텔, 카지노, 유행을 좇는 \_\_\_\_\_, 가짜 \_\_\_\_\_, 교단의 분열, 그리고—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회중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직업적인 \_\_\_\_\_들이 있었다. 아쉽게도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 마을을 통과해 놓여 있다. 순례자는 이 마을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 속하지 않는다(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고전 5:10]).



### 3. 소란의 발생

“‘무엇을 살 것이요?’...‘진리를 사고 싶습니다’...‘그 따위 것은 가지고 있지 않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든지 여기서 살 수 있소. 그래 무엇을 살 것이요?’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p. 151).

크리스천과 믿음 씨의 출현은 즉각 허영의 시장에 물의를 일으켰다. 먼저 이들의 \_\_\_\_\_은 그곳 사람들과 아주 달랐다. 일찍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이들은 허영의 땅(the land of Vainglory) 출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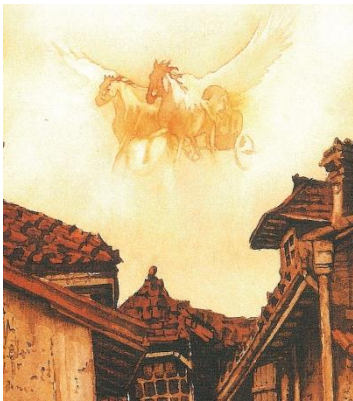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는 복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들에게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외투가 없었는데, 이 외투는 주께서 그의 알몸을 가리라고 주신 옷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이들은 \_\_\_\_\_도 달랐다. 외국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믿음 씨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고전 2:6-12).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비밀에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셋째 이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_\_\_\_\_이 없었다. 시장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믿음 씨에게 물었다. "무엇을 살 것이오?" 그러자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대답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듣고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취급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크리스천과 믿음 씨가 알미웠는지도 모른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크리스천과 믿음 씨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그들의 법정에서 서게 된다.

#### 4. 믿음 씨의 \_\_\_\_\_

"크리스천은 슬피 흐느꼈습니다....그런데 그때....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불의 전차가 구름 속에서 나와 광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전차가 다시 떠올랐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달라 보였습니다. 빛의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p. 164).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믿음 씨에 대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시장의 규칙과 거래를 반대하였고 평화를 방해하였으며, 도시에서 소란과 분열을 일으켰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유해하고 매우 위험스러운 원리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예찬사, 129).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된 재판의 절차와 증인들의 증언들도 모두 터무니 없는 것들이었다.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_\_\_\_\_ 왕 때 제정된 법에는 불순한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그런 자들의 남자 아기들을 강물에 던졌다(출 1:22). 둘째로 \_\_\_\_\_ 왕 때에는 누구든지 왕이 정한 우상에 엮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는 법이 있었다(단 3:6). 마지막으로 \_\_\_\_\_ 왕 시대에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 있었다(단 6:7).

결국 배심원단은 크리스천과 믿음 씨가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는 즉각 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한다. 그리하여 믿음 씨는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크리스천은 슬피 울었는데, 그때 그는 하늘에서 불의 전차가 내려와 믿음 씨를 태우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스천의 사형 집행은 유예되었다가 결국엔 석방된다.

## 1. \_\_\_\_\_ (Hopeful)과의 동행



“소망은 허영시장에는 요즈음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신의 비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예찬사, 135).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얼마 지나지 않아 \_\_\_\_\_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믿음 씨의 순교 이후 마음이 무거워져 있던 크리스천에게 한 가지 \_\_\_\_\_와 \_\_\_\_\_가 되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 크리스천이 떠나고 난 후 허영의 시장에는 그와 믿음 씨의 신앙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었다. 소망 씨 역시 고통 중에서도 이들이 보여준 언행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독일 소설 가운데 <깊이에의 강요>라는 소설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 한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한 평론가가 작품들을 돌아본 후에 이렇게 평했다. “당신 작품엔 재능이 번득이고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군요.” 화가는 이 평론가가 해 준 이야기 중에 칭찬은 다 잊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 이후로 화가는 자기 작품에서 깊이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에만 집착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자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비관한 나머지 자기의 그림 전부를 찢어 버리고 139m 절벽에서 몸을 던져버리고 만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에 취약하다.

## 2. \_\_\_\_\_ (By-ends)과의 만남

“그렇다면 ‘바람과 조류에 역행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저희들의 좌우명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겠습니까” (p. 171).



잠시 후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감언이설”이라는 도시에서 온 \_\_\_\_\_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멋진 신사처럼 다가와 자신을 소개한다. 그에게는 몇몇 친척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잔머리, 일구이언, 양다리 등이었다. 그는 포용적인 사람이어서 매우 폭넓은 인간관계를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기심 씨는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의견이나 신념은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기심 씨가 따르는 것은 \_\_\_\_\_과 \_\_\_\_\_의 종교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기심 씨를 향해 단호히 말한다. “천성에 가려면 고되지만 옳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기심 씨는 크리스천과 소망 씨가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포기한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고한다(롬 12:18). 그러나 여기에는 암시되어 있는 전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_\_\_\_\_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 3. \_\_\_\_\_ (Lucre) 노인의 유혹



“당신은 그리스도의 적이고, 옳은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한 재판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도 똑 같은 저주를 받게 하려 하고 있군요” (예찬사, 147).

이기심 씨를 떠나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쉬움의 평원을 지나 한 작은 언덕에 이르러 \_\_\_\_\_ (Lucre)이라는 노인—원본에 따르면 이 노인의 이름은 ‘\_\_\_\_\_’고, 크리스천은 ‘재물’(Lucre)이라는 산에서 이 노인을 만난 것이다—을 만나게 된다(딤후 4:10; cf. 골 4:14; 몬 24).

이 노인은 크리스천 일행을 보자마자 제안한다. “방금 저 언덕에서 은광을 발견했거든. 같이 가서 파봅시다. 조금만 파면 엄청난 갑부가 될 거요.” 이 말에 소망 씨는 마음이 끌렸다. “가서 봅시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의심쩍은듯 말했다. “아무래도 위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재물 옹이 대답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주의한 사람들한테나 위험하지”(p. 177).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 씨의 손을 잡아 끌며 걸음을 재촉했다. 물론 뒤따라오던 이기심 씨와 그의 일행—돈사랑, 이익사랑, 탐냄 씨—는 은광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 이후로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 4. \_\_\_\_\_ 을 지남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이 여인은 한 번의 유혹은 피했지만 다음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p. 179).

재물 옹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 뿌듯해 하던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흰 돌로 만든 조각상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뒤를 돌아다보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각상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_\_\_\_\_ 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성을 탐욕의 눈으로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창 19:26). 롯은 두 번의 유혹을 받았다. 롯은 주님의 천사에 순종함으로써 첫 번째 유혹을 피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유혹이 있었을 때에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믿는 자는 어제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_\_\_\_\_ 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 5. \_\_\_\_\_ (Giant Despair)을 만남

“거인이 당신만 때렸습니까? 당신만 굶겼습니까? 당신만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찌 당신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왕 참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p.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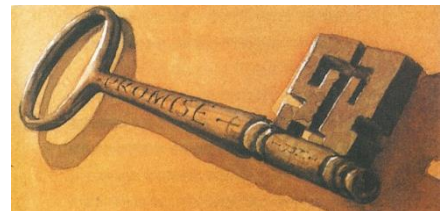
신앙의 여정이 언제나 굴곡이 있고, 메마르고 거친 길인 것만은 아니다.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생명수의 강(계 22:1-2)도 만났고, 풍성한 과일도 먹었고, 아름다운 꽃이 핀 초원에 누워 쉼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길이 다시 거칠어지고, 험해지자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며칠 전에 머물렀던 안락한 풀밭을 떠올리고서는 \_\_\_\_\_ 이 되었다. 그리고는 크리스천의 제안에 따라 곧은 길과 나란히 놓여 있는 편안한 풀밭길에 들어서기 위해 울타리를 넘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갔을 때 날이 새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걸어가던 길도 질척거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땅은 절망 거인의 소유지였다. 결국 이들은 거인에게 잡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_\_\_\_\_의 성(Doubting Castle)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절망하여 이 성을 빠져나가 곧은 길로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절망 거인은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채, 크리스천과 소망 씨에게 매일 같이 매질을 해댔다. 절망 거인의 아내—그녀의 이름은 \_\_\_\_\_ (Diffidence)이다—가 하루는 감옥 안으로 자루를 하나 던져 주었다. 거기에는 밧줄과 칼, 그리고 병이 한 개 들어있었는데 이는 모두 \_\_\_\_\_을 부추기는 도구들이었다.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인하여 드디어 크리스천이 자루 속에서 독이 든 병을 꺼내드는 순간 소망이 소리쳤다. “거인이 당신만 때렸습니까? 당신만 굶겼습니까? 당신만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찌 당신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왕 참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p. 198).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크리스천은 소망 씨와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기도 중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놀라며 소리쳤다. “내 가슴 속에는 \_\_\_\_\_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라면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의 말대로 두루마리 속에서 발견된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었고,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여 곧은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빗장은 약속의 열쇠로 풀린다.





■ 열한 번째 이야기 (딤후 2:14-26)

1. \_\_\_\_\_의 산에 도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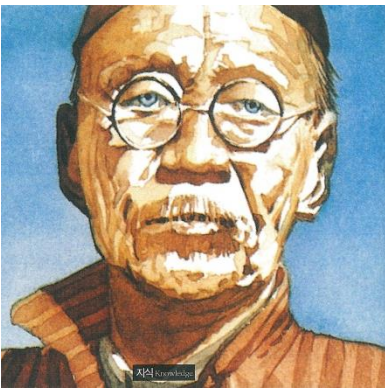
“의심의 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원과 과수원은 더 아름다워졌고, 샘과 시내는 더욱 신선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었고, 시내에서 매일 아침 목욕을 했습니다”(p. 208).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서 탈출한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기쁨의 산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 산의 곳곳에는 과수원과 포도원 정원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흐르는 시내에서 목을 축이고, 땀에 젖은 몸을 씻었다. 물론 탐스럽게 열린 과일들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 즐거운 풍경 속에서 안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순례길의 가장 큰 특징은 \_\_\_\_\_이며, \_\_\_\_\_은 주변적인 것이다.

\*영성신학자 마르바 텅이 말했던 것처럼 “안식은 일을 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치는 것이다.” 잘, 쉬자! 그것이 참된 \_\_\_\_\_의 출발이다.

2. \_\_\_\_\_들과의 만남

“천성을 향해 떠난 사람 중 극소수만이 이 산에 왔습니다....여기에 머무르신다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당신들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찬사, 158).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기쁨의 산을 올라가다가 양을 치고 있는 네 명의 목자를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_\_\_\_\_ (Knowledge), \_\_\_\_\_ (Sincere), \_\_\_\_\_ (Experience), \_\_\_\_\_ (Watchful)이었다. 이들은 이제 천성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알려주면서, 순례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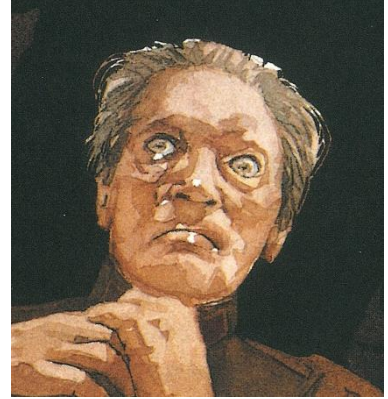
이들은 크리스천과 소망 씨를 데리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리고 ‘실수의 산’에 올라서는 절벽 아래 쌓여있는 부서진 뼈들을 보게 했다. 실수의 벼랑에서 떨어진 자들의 뼈였다. 지식 씨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해 주었다. 후메나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은 세속적이고 헛된 말로 교회를 오염시켰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_\_\_\_\_과도 같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딤후 2:16-18).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선한 목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3. \_\_\_\_\_ (Ignorance)와의 만남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앞서 가다가 그가 우리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찬사,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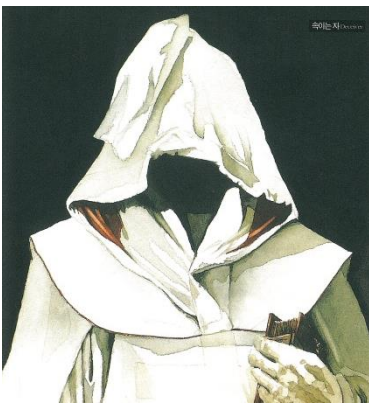
목자들과 헤어져 길을 가다가 크리스천은 교만이라는 나라에서 온 \_\_\_\_\_라는 이름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크리스천이 걸어온 순례의 길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걸어 이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저는 착실하게 살았어요. 또 누구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며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오로지 한 곳을 바라보고 내가 살던 나라를 떠나,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예찬사, 163).



크리스천은 그가 출발점에 있는 문을 통해 오지 않았으니, 나중에 도둑이나 강도라는 판결을 받거나 않을까 걱정했다—이 말 속에는 무지 청년이 \_\_\_\_\_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요 10:1-2). 그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가르쳐질 수가 없다.

### 4. \_\_\_\_\_ (Deceiver)와의 만남

“그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구불구불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천성이 그들 등 뒤에 있으며, 천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 228).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천상을 향해 길을 계속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흰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이미 많은 순례자들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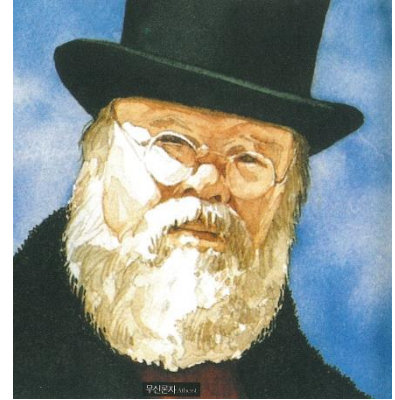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그가 뭔가를 속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믿고 따라가보기로 한다. 한참을 가자야 그들은 자신들이 천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흰 두건을 쓴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는 머리에 쓴 두건을 젖혔다.

그제서야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이 사람이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들이 경계하라고 했던 \_\_\_\_\_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 광명의 \_\_\_\_\_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고후 11:13-15). 하지만 그걸 깨달은 때는 너무 늦었다. 그들은 그물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때 빛나는 존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실수의 계곡으로 끌려가 떨어져 버렸을 것이다.

## 5. \_\_\_\_\_ (Adeist)와의 만남

“크리스천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애당초 천성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산에서 천성 문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p. 237).

얼마 후에 크리스천 일행은 한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_\_\_\_\_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찍이 천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집을 나와 그 성을 찾기 위해 20 년 동안이나 헤매어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곳은 만날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런 곳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때 곁에 섰던 소망 씨가 아니었다면 크리스천은 또 한 번 \_\_\_\_\_에 사로잡힐 뻔했다. 소망 씨는 크리스천에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복음전도자, 해설자,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난 사람들과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들이 해 주었던 말을 기억나게 해 주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평화를 얻지 않았던가요? 매서운 채찍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어서 갑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고후 5:7).”

□ 소망 씨의 간증

“사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었습니다. 앞으로는 천 년을 산다 해도 기꺼이 그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예찬사, 179).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목자들이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마법에 걸린 땅(Enchanted Ground)이었다. 크리스천은 목자들이 해 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깨어 근신하자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잠을 물리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크리스천은 소망 씨가 받은 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1. 진리의 \_\_\_\_\_** : 원래 소망 씨의 고향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그는 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 음주, 악담, 거짓말, 자유연애 등에 사로잡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망 씨는 이 마을을 방문했다가 순교하게 된 믿음 씨가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 \_\_\_\_\_이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다(롬 6:21-23; 엡 5:6).

**2. 성령의 \_\_\_\_\_** : 물론 소망 씨는 진리의 빛을 막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스며든 진리의 빛은 소망 씨의 영혼에 스며들어 그의 양심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그로 하여금 \_\_\_\_\_을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7-8).

**3. 죄인됨의 \_\_\_\_\_** : 물론 그는 죄를 의식하게 되었지만 죄에서 떠날 수는 없었다. 특별히 그에게는 친구와의 우정이 매우 중요해서 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죄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워져만 갔다. 예를 들면 거리에서 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성경을 읽거나 인용할 때, 병들었을 때, 장례식을 알리는 교회 종이 울릴 때, 친구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 생생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_\_\_\_\_하게 되었다.

**4. 자신의 \_\_\_\_\_** :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망 씨는 우선 자기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을 멀리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이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전의 범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동안에도 뒤섞여 있는 그릇된 동기들, 곧 이기심과 자만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결국 소망 씨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도 부정과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딤후 3:5; 사 64:6; 롬 14:23). 본회퍼가 말했듯이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5. 그리스도를 \_\_\_\_\_ :** 그때 믿음 씨는 소망 씨에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_\_\_\_\_ 해 주었다. 그러나 소망 씨는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믿음 씨가 대답해 주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내가 그를 믿으면, 그가 행하신 일들과 그 일들의 효력이 내게 \_\_\_\_\_ (imputed)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 씨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는 것과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었지만, 자신 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리라는 말은 믿어지지 않았다.

**6. 그리스도를 \_\_\_\_\_ :** 믿음 씨는 말해 주기를 예수께서 소망 씨를 초대하셨으니, 그에게 \_\_\_\_\_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해 주었다(마 11:28). 소망 씨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믿음 씨가 대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를 보여주시도록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무릎을 꿇고 \_\_\_\_\_ 해야 합니다"(시 95:6; 단 6:10; 렘 29:12-13). "뭐라 기도해야 하나요?"라는 소망 씨의 질문에 믿음 씨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소개해 주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게 가득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의와 자비가 없으면, 그리고 그분의 의를 믿지 않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며, 구세주를 보내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에게 기꺼이 베푸셨습니다. 주님, 저는 진정 의지할 데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7. 그리스도를 \_\_\_\_\_ :** 소망 씨는 믿음 씨의 충고를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한다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해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죽는다면 은혜의 보좌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던 중 소망 씨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그를 내려다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그는 물었다. "주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이 말씀을 통해 소망 씨는 믿는다는 것은 주께 \_\_\_\_\_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었다. "나와 같은 죄인도 받아 주시나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소망씨는 고백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선과 끝없는 자비와 구원하시는 그의 위대한 힘과, 강물 같이 나의 영혼으로 흘러드는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나만의 노력을 그만두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는 가장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고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흘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천 년을 산다해도 기꺼이 그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 □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마 11:27). 올바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예찬사, 185).

이어 뒤에 처져있던 무지 씨가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있던 크리스천과 소망 씨에게 다가왔다. 크리스천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무지 씨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지 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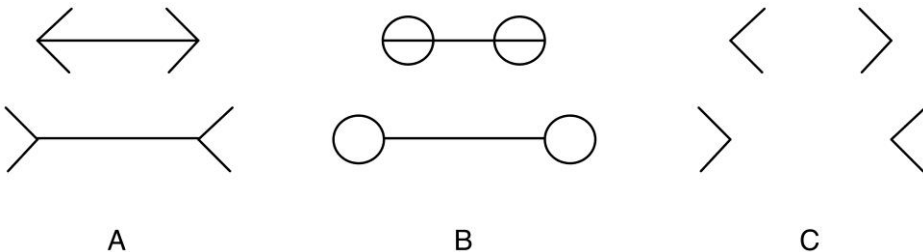


**1. 마음의 \_\_\_\_\_ :** 무지 씨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즐거운 생각들이란 그가 종종 품곤하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무지 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를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크리스천은 무지 씨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무지 씨는 이 질문에 대해 한결 같이 자신의 \_\_\_\_\_이 그렇게 말해 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잠 13:4 게으른 자는 \_\_\_\_\_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 잠 28:26 자기의 \_\_\_\_\_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_\_\_\_\_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착시 현상: 어떤 선분의 길이가 더 긴가?



**2. 좋은 마음:** 크리스천은 이어 무지 씨에게 좋은 마음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해 준다. 좋은 마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_\_\_\_\_에 일치된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하나님에 관하여 좋은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한다(시 139:1-4).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신앙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신다(갈 3:10). 좋은 마음은 둘째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_\_\_\_\_할 때와 똑 같이 자신을 \_\_\_\_\_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창 8:21).

3. \_\_\_\_\_ 믿음: 무지 씨는 자신도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선한 행실의 \_\_\_\_\_이자, 도덕적 \_\_\_\_\_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이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 받지 못할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행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선하다고 할 만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다(딤후 3:5)—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롬 4:5).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찾아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한다.

4. \_\_\_\_\_ 믿음: 무지 씨는 인간이 \_\_\_\_\_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 대해 알지 못했다(What, would you have us trust to what Christ, in his own person, has done without us?).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죄용서를 받고(딤후 1:15; 롬 6:5-6), 역시 믿음—그리스도를 붙들—으로써 그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완전한 의를 함께 소유하게 된다(롬 10: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_\_\_\_\_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_\_\_\_\_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_\_\_\_\_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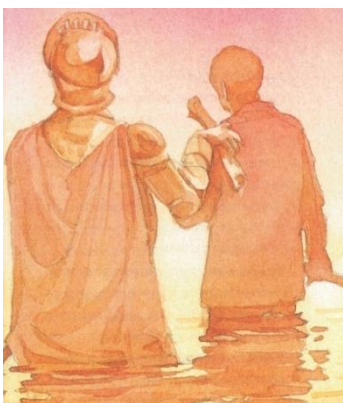
## 1. \_\_\_\_\_ 나라에 도착함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자 ‘뿔라’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 땅의 공기는 쾌적하고, 달콤했으며, 기쁨의 산의 공기보다도 훨씬 포근했습니다....풀들은 푸르고 무성했습니다. 나무는 꽃들로 만개했고, 시냇물은 기쁨의 산의 시내처럼 깨끗하고 맑았을 뿐 아니라 더 깊고도 유쾌하게 흘렀습니다”(p. 242-43).

잠들지 않기 위해 나는 대화 덕분에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무사히 마법에 걸린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어 이들 앞에는 \_\_\_\_\_ 나라의 아름다운 정경이 펼쳐졌다(사 62:4). 두 사람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순례의 길에서 경험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이 기쁨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_\_\_\_\_ 병이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아 5:8). 그들은 뿔라 나라에서 기쁨을 만끽한 후에 다시 순례의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계곡의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진주와 황금,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빛나는 천성을 볼 수 있었다.

## 2. 사망의 강을 건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며 그 땅의 주인의 약속을 기억하자 강물이 잠잠해지고, 강바닥은 다시 단단해졌고, 안개가 걷혔습니다. 크리스천은 천성의 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침내 강을 건너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p. 248).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천성의 문 앞을 흐르고 있는 차갑고 깊은 강에 도착했다. 그 강의 이름은 \_\_\_\_\_의 강이었다. 그러나 이 강에는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었다. 뿔라 나라에서부터 동행한 천상의 존재에게 크리스천이 물었다. “다른 길은 없나요?” 천상의 존재가 대답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태초 이래 \_\_\_\_\_과 \_\_\_\_\_ 이렇게 두 사람만 그 길로 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순례자는 이 강물을 걸어서 건널 수 밖에 없었다. 강물은 차가웠고, 유속을 빨랐으며, 점점 깊어졌다.

크리스천은 성문에 도착하기 전에 물에 빠져 죽을까봐 큰 걱정을 했다. 그러나 걱정할수록 물은 더 깊어져만 갔다. 불쑥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끝이 나나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때 소망은 크리스천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_\_\_\_\_가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때 크리스천이 소리쳤다. “아, 그분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사망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천성은 비록 매우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물에 빠진 베드로〉

1632 년 作



1652-56 년 作



### 3. \_\_\_\_\_에 들어감

“그리고 잠시 후, 빛나는 문처럼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높고 높은 천성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두 순례자를 맞으라 나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두 순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이었습니다”(p. 249).

사망의 강을 건넌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드디어 천성에 가까이 도달하게 되었다. 두 명의 천사가 이들을 맞이하여 천성의 문으로 인도했다. 이들로부터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이제 곧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며, 세상에 있을 때에 겪었던 슬픔과 질병, 고난과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 소개를 받는다(계 21:1-4). 그리고 이들이 천성의 문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천군과 천상의 나팔수들이 나와이들을 맞이하였다.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천성의 문지기의 요구에 따라 \_\_\_\_\_ —아마도 십자가 앞에서 받은 두루마리—를 제출했다. 이윽고 이들은 그 형체가 변화되고, 황금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의 우뢰와 같은 찬송 가운데 한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들어가십시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하지만 이어 나타난 무지 씨는 쉬운 길을 따라 천상의 문에 도착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받는 \_\_\_\_\_를 제출할 수 없어 문 앞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향하고 만다(요일 5:10).

